◈며느리 권씨 열전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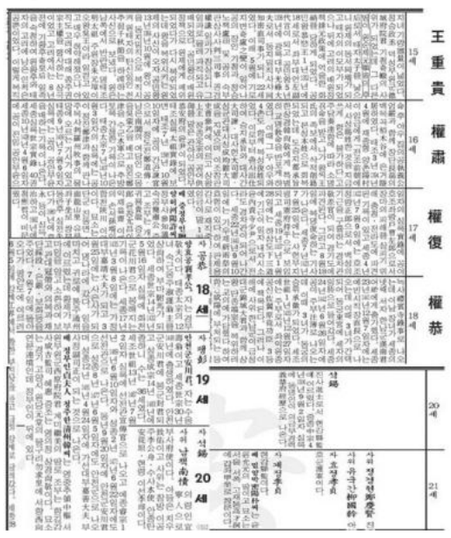
문무겸전의 대장부 '임형수'의 어머니 권씨 (추밀공파 21世 , 權錫의 딸)

사약 16잔, 문무겸전의 대장부 임형수

조선 중기의 문신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1514~1547)는 문장과 무예를 함께 갖춘 보기 드문 '문무겸전'의 인물이었다. 본관은 평택이고 자는 사수(士遂)이며, 나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북병사(北兵使)를 지낸 임준(林畯),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현감 권석(權錫, 추밀공파 20世)의 따님이다.

또 나주의 명인으로서 임형수 사망 2년후 탄생한 인물 쾌남아 백호(白湖) 임제와 함께 전라도 천년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임제의 부친은 병마절도사 임진(林晉)이다. 그래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나 임제는 나주 임씨이다. 그러나 금호(錦湖)와 백호(白湖) 그 대비가 주는 뉘앙스는 대단하다.

그리고 임형수를 이해할 때 아버지 임준의 무장적 배경만 볼 것이 아니라, 어머니 권씨를 통해 이어지는 안동권씨 외가의 계통과 무가 기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권씨의 친정은 권석에서 권팽·권공·권복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관 중심의 계통으로 제시된다.



왕중귀(王重貴)는 원 순제(혜종)와 기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소종(昭宗)의 황후 권씨의 4촌 오빠이다. 따라서 위 왕중귀 부분, 즉 왕중귀 딸이 원순제 비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는 오류이고, 20번 권석의 사위 임준(임형수 어머니)에 대해서는 족보에 빠졌다, 이렇듯 지금까지 인터넷 족보(2000년 판)는 오류가 있고 이런 경우는 10년간 접해 본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임형수의 어머니, 추밀공파 21世

추밀공파는 권문의 명문 계파로 가문의 기반 확립기 (10~13世)에는 추밀공파의 파조인 10세 권수평부터 아들 권위, 손자 권단, 증손자 권보에 이르러 고려 명문거족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특히 13세 권보의 딸이 충선왕의 비(순화원후)가 되면서 가문은 국척(國戚)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몽골 간섭기(14~15세기)에는 14세 권재(權載)는 충선왕으로부터 '왕' 성을 하사받아 왕후(王煦)로 개명하였고, 그의 아들인 15세 왕중귀(王重貴)까지 왕씨 성을 유지했다.

복성(復姓)과 조선조 현달 (16세 이후)기에는 16세 권숙 대에 이르러 다시 본성인 '권씨'를 회복하였고, 이후 조선조에 들어서도 무과 급제, 공주와의 혼인(태종의 딸 숙궁공주와 18세 권공의 혼인) 등을 거치며 명문 가문의 맥을 탄탄하게 이어갔다.

임형수의 어머니는 안동권씨 권석(權錫)의 딸이다. 권석은 진사와 현감을 지낸 인물로 자료에 나타나며, 그의 부친은 권팽(權彭)으로 기록되어 있다.

권석의 선대에는 안천군 권팽, 양효공 권공, 화산부원군 권복 등 안동권씨의 유력 인물들이 이어진다. 특히 권복은 1417년 무과에 급제하여 도절제사 등을 지냈고, 권공 역시 화천군·대장·숭덕대부에 이른 인물로 기록된다.

이 계통을 단순히 '무인 집안'이라고만 규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문관적 학문 전통과 무관적 기개가 함께 존재했던 가문적 환경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한 외가를 둔 임형수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면모가 바로 문장과 무예의 결합이다.

평택임씨 그 연원

평택 임씨의 도시조는 당나라에서 신라 흥덕왕때 귀화한 임팔급(林八及)인데, 당시 산동성 등주(오늘날 연태)에서 8현(임팔급, 설인경, 허동, 유전, 송규, 최호, 권지기, 공덕수)으로 신라에 왔다. 평택 임씨는 고려 말에 임세춘(전객령계)과 임언수(충정공계) 두 중시조로 나뉘어 세계를 이어왔다. 2015년 기준 인구는 약 22만 7천여 명으로, 임씨 성씨 중 나주 임씨 다음으로 많다.

득성조 비간(比干)은 동이족 상나라 주왕 때 충신으로, 폭정을 직간하다 참형당했고, 아들 견이 장림산에 은거하며 임씨 성을 얻었다. 도시조 임팔급은 당나라 문종 때 한림학사로, 간신의 모함을 피해 신라로 망명하여 평택에 정착했으며, 적국 침입을 막은 공으로 팽성군에 봉해졌다.

중시조 임세춘은 고려 말 세자전객령과 연희궁부사를 지냈고, 후손으로 명장 임경업이 있으며 충주 숭묘각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중시조 임언수는 임형수의 선조로 고려 말 삼중대광과 평성부원군에 올랐고, 아들 임견미 덕에 평성부원군이 되었으며, 아들 성미와 견미와 제미가 모두 현달했다. 세거지는 본관인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포천 소흘읍 이동교리, 청도 풍각면 금곡리, 성주 대가면 등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활도 잘쏘는 글만 잘하는 선비가 아닌 문무겸전

임형수는 1531년 진사가 되고 1535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주서·기사관·사서·설서·수찬·회령판관·전한 등을 거쳐 홍문관 부제학에 올랐다. 사가독서를 통해 학문을 연마했으며 이황·김인후 등 당대의 대표적 사림 인사들과 교유하였다.

그러나 임형수의 특징은 문장에만 있지 않았다.

자료에는 그가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며 풍채가 좋고 기개가 높았다고 전한다. 또한 궁마(弓馬)에 능하고 담론과 해학에도 뛰어난 인물로 묘사된다. 정조 때 편찬된 "국조인물고" 계열의 기록에서도 그는 외모와 풍의가 뛰어나고 언행이 활달하며 기개를 숭상한 인물로 소개된다.

이 때문에 임형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문무를 겸비한 호걸형 선비로 받아들여졌다.

퇴계 이황이 그를 '기남자(奇男子)'라고 칭찬했다는 전승도 이러한 인물상을 잘 보여준다. 당시 모두들 영의정 감이라 칭송하고 기대하는 바 컷고 그의 죽음을 이황은 매우 안타까와 했다.

임형수의 호탕함은 어디에서 왔는가

임형수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는 매우 많다. 제주목사로 부임하던 때 배가 풍랑을 만나 뱃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도 그는 뱃전에 나와 태연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사공이 위험하다고 만류하자 오히려 웃으며 자신이 이런 곳에서 죽을 사람이냐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 윤원형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직선적이고 호방한 성격이 나타난다. 윤원형이 제주목사로 떠나는 그를 전송하면서 술을 권하자, 임형수는 술잔을 들고 "공이 과연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주량껏 마시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승이 있다.

이러한 일화들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후대 사람들이 임형수를 어떤 인물로 기억했는지를 보여준다.

곧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권세에 굽히지 않으며, 술과 풍류를 즐기고,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호걸형 선비의 이미지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평택 팽성읍 농성, 임팔급이 당나라에서 건너와 동료인 학사와 함께 축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토성이다. 둘레가 300m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쟁을 위한 성이라기보다는 곡창지대인 평택의 농산물 저장시설로 쓰인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8학사 중 권지기라는 이름이 보인다. 즉, 중국 권씨도 있었고, 고려사에 권행 이전에 권씨가 보인다. 사진 네이버

■ 괴운(槐雲) 칼럼



늦게 만난 천명(天命)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권해조 편집위원께서 9월 17일 별세하셨다. 고인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종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마지막까지 종보를 봤다고 한다. 그만큼 종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고인은 입원하기 바로 전인 9월 3일 편집국장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으로 "저의 종보 괴운칼럼 10월호는 지난 9월 원고에서 미사용 제목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저는 이달로 종료하고 앞으로 새로운 필자를 선발하여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전역 후 2002년부터 약 20년간 매달 종보에 글을 보낸 취미로 오늘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칼럼 원고는 보냈으니 그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퇴원 즉시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하시더니 그 말이 마지막이 되었다. 이에 그 유지를 받들어 마지막 칼럼을 싣는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종보에 글을 쓰고 종보를 걱정하는 이 정신이 바로 종보의 정신 아니겠는가. 그동안 종보에 기고한 주옥같은 칼럼은 종보와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편집자주〉

오늘은 친구로부터 받은 '늦게 만난 천명(天命)'에 관하여 알아본다. 칠십을 넘긴 나이에 힘든 고비를 맞이했다. 학창 시절부터 직장생활, 회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뜻에 따라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다. 처음엔 당황하고 원망도 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또한 천명(天命)인가.' 젊은 날에는 천명을 막연한 운명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중용(中庸)〉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부여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며, 그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따라서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라기보다, 내 안의 본성을 따르라는 부름인지도 모른다.

공자는 평생을 배우고 닦은 끝에 '오십에 천명을 알았다(五十而知天命)'는 말이 이제야 가슴에 깊이 다가온다. 맹자는 고자장(告子章)에서 천장강대임어시인야(天將降大任於是人也)라 했다.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들의 마음과 뜻(心志)을 괴롭게 하고(必先勞其心志), 근육과 뼈마디를 피곤하게 하며(勞其筋骨), 그 몸과 창자를 굶주리게 하고(餓其體膚), 신세를 가난에 빠뜨려(空乏其身行),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拂亂其所爲).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所以動心忍性)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曾益其所不能).

시련은 나를 강제로 멈춰 세웠다. 그 멈춤 속에서 갑작스레 닥친 현실과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걸려 있는 현안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

그러자 노자의 말이 새롭게 들려왔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애써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제법인연생 제법인연멸(諸法因緣生 諸法因緣滅). 모든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고, 인연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인다. 유가는 천명을 깨달아 실천하라 하고, 도가는 천명을 알고 순응하라 하며, 불가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남을 관조하라 한다. 길은 서로 달라도, 사람을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같다.

시련은 나를 약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솔직하고 겸손하게 만들었다. 바쁘게 살아가며 놓쳤던 가족의 얼굴, 오랜 친구와의 대화, 아침 햇살, 숲길의 바람과 새소리…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제 천명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 하나는 하늘이 내게 맡긴 책임으로서의 천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으로서의 천명이다. 아마도 그것이 칠십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어렵게 얻은 작은 지혜일 것이다.

우울함이 스며들 때면 공자의 말이 떠오른다. 불원천 불우인(不怨天 不尤人).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인다. 천하언재(天何言哉). 하늘이 무슨 말을 하랴. 사계절이 오고 가고, 만물이 저마다의 때를 따라 살아가듯, 내 삶 또한 그 큰 흐름 안에 있을 뿐이다. 인생의 성장은 고난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더 깊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의 시련은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수양의 시간인지도 모른다. 남은 날들은 조금 더 조용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천명이다. 운명과 사명이 인간이 생각하는 삶이라면, 천명은 하늘이 계획하고 바라는 하늘의 뜻에 따르는 방향으로 쓰임 받는 최고의 삶입니다. 특히 맹자의 글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좋은 충고와 위로의 말이 될 것이다.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5장 내가 의사다

3. 밥 먹는 방법

밥 먹는데 까지도 방법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반드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저 수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 젖을 뗀 후부터 오늘까지 잘만 먹었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잘 익어 보셔야 할 것 같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천재성이란 비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고 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삼 시세끼니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밥을 먹고 지난다.

좋은 것과 맛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이롭지는 못하다. 입에 쓴 것이 몸에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쓴 음식만을 먹으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밥은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먹어야 한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칭찬하는 말과 기분 좋은 생각으로 먹는 것이 건강비결의 제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건강한 식사방법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간단하지만 습관이 되질 않아서 문제이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방법의 실천이 좀 더 쉬울 것이다.

방법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여 먹는 것이다.

밥과 반찬은 고체며 국과 물은 액체이다. 이것의 조화로움이 우리 몸 안에서 생명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낮 시간은 양(陽)의 활동시간이기 때문에 고형의 음식이 에너지원이 되며, 밤은 음(陰)의 순환시간이다. 그러므로 낮 시간에는 물이 가급적 적인 음식을 먹고 밤 시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방법이다.

아주 단순한 원리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실천하기가 힘이 드는데, 저녁시간이 되면 많은 양의 식사와 알코올의 섭취량이 너무 많아 몸 안의 기의 순환이 되질 않아서 배가 나오는 비만이 되고 결국 그 비만 때문에 각종 생활습관병(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모두 밥을 올바로 먹지 못하여 질병이 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입에서 잘게 쪼개어진 음식은 위에 부담을 덜 주게 되지만 알코올이 무엇을 먹는지 조차 지나치게 되면 위도 어지러워 소화가 되질 않을 것이고 이 소화 안된 음식물이 장 속에서는 제대로 효소화 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보다 천천히 씹어 대뇌의 기분을 느끼고 먹는 다는 즐거움이 위를 편안하게 운동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위암도 장암도 예방할 수가 있다.

세상은 모두 음과 양의 조화로움이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졌기에 우리의 밥 먹는 방법도 그에 따름이 가장 바람직하다.

4. 손과 발

우주는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은 전체를 반영한다. 인간이 소우주라는 말도 그런 뜻이다.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다.나무잎 하나, 가지 하나, 뿌리 한 줄기에도 나무 전체의 모습이 들어 있어 그것을 반영한다. 사람의 몸도 지체는 몸 전체를 반영한다. 얼굴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읽을 수 있고 손이나 발에서도 신체의 내부를 알 수 있다.

수지침, 족침, 이침, 발 마사지 등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방법은 한 가지, 상응부위나 상응혈을 자극하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같이 상응점과 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시술자 마다 부위가 달라서 이론의 신빙성이나 치료의 효능을 가금씩 의심 받고 있다.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원리로 볼 때 손이나 발이 몸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시부위가 잇는 것도 사실이다. 그 부위를 자연스럽게 보도록 하자. 손발의 5지(支)는 오행(오행)에 따라서 엄지부터 목(木), 화(化), 토(土), 금(金), 수(水)이며, 음, 양에 따라 안쪽은 음이고 바깥쪽은 양이다. 따라서 5지는 몸 안의 장부를 모두 담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은 장부(臟腑)에 달려 있다. 고로 손이 어디고 발이나 눈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질병은 장부에서 오기대문에 장부를 다스리지 않으면 근치(根治)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치료 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손과 발을 통해 장부를 튼튼히 해 놓으면 건강은 안심해도 좋을 일이다. 이것은 병의 예방은 물론이지만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장부를 직접 보고 만져서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 수는 없다. 침이나 한약으로 다스리기는 하지만 보다 확실하고 빠른 면에서는 5지의 다스림을 따를 수 없다.

이 오지 다스림은 환자가 즉석에서 그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질병에 관계없이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손가락을 안으로 깍지 끼워서 힘껏 누르는 방법이다.

발가락은 안과 바깥쪽을 꼭꼭 눌러 주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상당히 아프지만 다 풀려서 안 아플 때가지 한다.

돈 안들이고 고치는 내가 의사다!

5. 바다 속 금덩어리

민물고기와 바닷고기 중 어는 것이 더 짤까? 당연히 바닷고기다. 그것은 바닷물이 짜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바닷고기는 물이 짜니까 세균도 소독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몸에는 염도가 낮다. 반면에 민물고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몸속에 염분을 많이 축척한다. 그런고로 민물고기가 바닷고기 보다 더 짜다. 염도를 비교하자면 바닷고기 – 민물고기 – 육지동물 –사람 순이다. 고등동물일수록,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환경이 멀수록 몸 안의 염도는 높다. 육식 동물이 사냥을 하면 맨 먼저 먹는 것이 피와 내장을 먹는데, 이는 피와 내장에 염도가 높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장은 다 버리고 살코기만 먹는다. 먹는 것에 관한 지혜는 사람이 동물보다 한 수 아래인 것이다.



고인 물은 섞는데 바닷물은 왜 썩지 않는 것일까? 세계의 인구가 지금 70억 5천만이라고 한다. 이들이 하루에 내어 놓은 온갖 오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는 썩질 않으니 이상한 조화가 아닌가? 그것은 소금의 역할 때문이다. 소금은 오물을 끌어 들인다. 그래서 소금의 상당 부분은 불순물인 간수로 되어 있다. 앞으로 이 소금의 불순물의 량은 점점 더 해만 갈 것이다. 김치 담글 때에 간수를 뺀 소금으로 하여야 그 맛이 난다.

의사들은 당뇨나 신장병에는 소금을 거의 못 먹게 하는데, 인간은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는다. 체액의 0.9%는 염분이다.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 소금을 먹으면 병이 호전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신장에 염분이 필요량이 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된다.

소금의 불순물인 간수는 몸 속의 철분, 단백질, 섬유소를 산화시키고 파괴한다. 사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소금을 섭취한다. 먹은 만큼 몸은 간수로 인해서 노화와 질병이 찾아 오게 된다. 그러나 순수 염분은 신비의 물질이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준다. 또 담과 염증을 제거해 준다.

순수 염분은 불순물을 당기는 힘이 있어 체외로 배설케 함으로써 몸 안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만병의 원인은 기와 혈의 막힘에 찾아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 염분은 만병을 다스린다고 보면 맞는 말이다. 소금의 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멈어 선다. 소금은 엄밀히 보면 광물질도 무기질도 아니다. 소금과 물은 열에 수축되고 추위에 팽창한다. 소금은 전해질로서 몸에 기본 에너지가 되는 전기 작용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므로 소금과 물은 생명의 기초단위요, 근간이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고, 또한 소금이 있어야 그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다.